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파워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 씨



바이올린 연주자 조윤범(39)씨가 지난 18일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특강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 “음률따라 표정 지어보세요 클래식과 금방 친해집니다”

## 동성에 논란 ‘차이코프스키’·미사 게을리한 ‘비발디’ 거장들의 생애·작품세계 소개... “배경 알면 더 친근”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음률에 따라 표정을 지어보세요. 음악을 자신의 슬픔이나 기쁨의 감정 등 다양한 표정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이를 반복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음악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현악 4중주단 ‘콰르텟엑스’를 이끌고 있는 조윤범(39)씨는 지난 18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호텔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특강에서 “낯선 음악을 들을 때 즐겨 쓰는 방법”이라며 클래식을 듣는 자신만의 비법을 소개했다. 웃는 표정을 지으면 저절로 유쾌해지는 감정이 우리나라는 것과 닮았다.

저서 ‘조윤범의 파워클래식’(1,2권)과 다양한 연주활동으로 대중과 소통해 온 그는 특유의 재치와 입담을 선보였다. 딱딱해 보이는 강의주제(클래식 음악의 역사)와 달리 비발디, 하이든, 모차르트, 차이코프스키 등 음악가의 흥미로운 일화와 감춰진 생애, 작품세계를 소개했다. 클래식 음악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길 하나를 알려주기 위한 방법이었다. 창작 배경을 알고 접근하면 더 빨리 친숙해질 수 있다는 길을 일러준 셈이다.

클래식 애호가들이 비발디의 ‘사계

등 수많은 작품을 들을 수 있게 된 배경이 비발디의 ‘작무유기’ 덕분이었다는 게 대표적이다. 카톨릭 신부였던 비발디가 미사를 게을리한 탓에 교황청으로부터 ‘미사집전 금지’ 징계를 받아 명곡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이 제목을 ‘송어’로 알고 있는 슈베르트 가곡의 제목은 ‘송어’가 맞다. 송어는 바닷고기이고 ‘송어’는 계곡과 강에서 사는 어종이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잘못돼 송어로 알려졌는데, 가곡의 가사 ‘겨울 같은 강물에 뛰놀 수 있는 어종은 송어’라고 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 ‘차이코프스키’가 사실은 동성에 논란에 휘말리자 극악을 마시고 절명했다는 등 비화도 들려줬다.

그의 유머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소개할 때, 절정에 달했다. “새벽부터 클래식을 보급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쓰레기 수거차량이 후진할 때 들려주는 음악이 안타깝게도 ‘엘리제를 위하여’라니까요. 음악사에 등장하는 천재들이 대부분 30대에 요절했기 때문에 저도 40대 이전엔 무척 고민이 많았어요.”(웃음)

그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바로크 시대 음악가 파헬렐의 명곡 ‘개는’을 들어 작곡형식을 소개하고 연주가의 숨겨진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개는 일종의 돌림노래 형식으로 보통 같은 멜로디를 첼로(1명), 바이올린(3명) 등으로 구성된 연주자들이 합주한다.

“굉장히 유명한 곡이지만 첼리스트는 이 곡을 굉장히 싫어하죠. 곡이 끝날 때까지 8가지밖에 없는 음을 무려 28번이나 반복해야하기 때문이죠. 첼로 연주자가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조로운 8가지 음을 연주하지 않는다면 개는의 아름다운 상상력이 나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개는은 300년 전 바로크 음악형식이 유행하던 시절의 일종의 돌림노래인 푸가(Fuga) 형식에서도 가장 단순한 형태라 하나죠.”

그는 강연을 마친 후 질의응답에서 클래식음악과 친숙해질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더 일러줬다. ‘음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그의 지론이다.

“고전음악을 듣다 곡이 이상하면 ‘이상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세요. ‘작곡가가 의도한 바가 있겠지’ 정도 생각하면 서요. 괴상하면 괴상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예술작품을 접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감상태도를 유지하며 끝까지 들으면 어느 순간 작품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기업가 정신 좋지만 내자식 공무원 됐으면”

## 환경연 국민의식 설문...직업선호도 43%·만족도 76% 1위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지만 내 자식은 공무원을 시키고 싶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 반기업정서가 작년보다 완화됐지만 정작 본인이나 자녀의 직업으로는 공무원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아졌다고 19일 밝혔다.

본인과 자녀가 참여하기 원하는 직업의 선호도 조사에서 공무원은 작년 34%

보다 9%p 증가한 4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23%), 대기업 취직(15%), 자영업·창업(10%), 중소기업 취직(10%)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제외하면 중소기업 선호도 비중만 작년 수준을 유지했고, 나머지 직업군은 모두 선호도가 내려갔다.

실제 공무원이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76%로 전체 평균 57%를 웃돌았다. 전문직 종사자의 만족도가 69%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

의 만족도는 각각 49%에 그쳤다.

3~4년 이후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불과했고, 63%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기업인에 대한 호감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작년 63%에서 올해 65%로 기업인에 대한 호감도는 51%에서 60%로, 전문 경영인에 대한 호감도는 66%에서 79%로 올라갔다. ‘국내 반기업정서가 강하다’는 응답은 63%에서 59%로 감소했다.

앞으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요건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42%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 “2017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10대 품목 개발·축산분야 현대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2017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성팜랜드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농업 미래 성장산업 대토론회’에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과 추진방안’ 정책발표를 통해 “중국의 알리바바 등 온라인 쇼핑몰과 대기업 유통망, 프랜차이즈를 활용해 가공식품 수출을 늘리고 전북 익산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고부가 농식품 수출 단지로 육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식품제조업체의 국산원료 사용비율을 올해 29.7%에서 2017년 34.7%로 높이고, 축산식품과 저나트륨식품 등 미래시장을 주도할 10대 전략품목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자·농기계·동물약품 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17년까지 24억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면서 “김치의 민간육종단지, 전주의 농촌진흥청, 정읍의 방사선육종센터도 연계해 종자사업별트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한·중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쌀 농산물에 대책으로 발작물 주산지 중

심으로 공동경영체를 키울 것”이라고 밝히고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시설 원예·축산분야의 현대화를 이룰 것”이라며 “토마토·딸기 등 유망수출품목은 현대화된 스마트온실을 2017년까지 전체의 30%인 1만6000ha로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호주, 캐나다와의 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축산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농업인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환경미화원 1명 채용에 22명 몰려

## 광주시 자동차 전용도로 담담...대졸이상이 10명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자동차 전용도로 환경미화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한 공개 모집에 22명이 지원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19일 “지난 18일 마감된 환경미화원(공무직) 채용 모집(1명)에 22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응시자는 모두 남자였고 연령은 20대 2명, 30대 8명, 40대 11명, 50대 1명이었고 최고령자는 54세였다. 학력은 고졸 13명, 대졸이상 9명으로 석사학위 소지자가 1명 포함됐다.

응시자 경력도 대졸 취업생과 회사원, 자영업자 등으로 다양했다.

22대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은 1년

차 연봉(수당포함)이 2750만원에 정년보장되고 주5일제 근무 등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했던 데다 다른 환경미화원과 달리 별도의 체력검사를 하지 않은 점도 지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취업난 등으로 응시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줄은 몰랐다”면서 “힘든 업무지만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무안~라오스 첫 운항

## 내년 1월3일부터 한달간 7회

전남도는 19일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무안~라오스 간 직항 전세기를 내년 1월 3일부터 1월 한 달 동안 7차례 운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안~라오스 간 전세기 운항을 통해 지역민들이 인천까지 가는 번거로운 없이 왕복 10시간 정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라오항공은 라오스 국적기로 운항 기종은 A-320 항공기로, 모두 144명이 탑승할 수 있다. 앞으로 탑승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경우 관광 성수기에 부정기적으로 추가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

무안공항에서 라오스 직항 노선을 이용할 승객은 전남, 광주의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

##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부작용: 수술 초기 아간 빛반전,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가격대폭 할인행사중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겹술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식후 혈당상승 억제!!

-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 0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mm NAVER 백세생활건강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

www.gjs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 새롭고인증개사전문학원

광주본원 서구청앞 361-8111

전국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학원 새롭고인증개사전문학원

전/국/최/강 새롭고인증개사전문 서울에서 출강!

민법 백현 학과 임진택 공법 이강일  
중개법 홍희기 공사법 안규재 세법 임기원

### 개강 11월10일

주부반 11월~12월 기초과정과목 강의합니다.  
성원반 인터넷 동영상수업은 무료

합격률 1위 선배강사들이 추천한 1등학원

합격을 위한 새롭고인의 차별화된 시스템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민원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력 1위

“새롭고인” 전국 수석합격자 2명 배출

광주새롭고인에서 제 15회~제24회 시험까지 2000여명 합격자 배출

### 직업상담사 특강(주·야)

학원홈페이지 한글주소 검색 **광주새롭고인증개사전문학원**  
학원카페 다음카페 검색 **광주새롭고인증개사전문학원**

## 새롭고인증개사전문학원

농성동 서구청앞 광주본원 2층 ☎ 361-8111